1 제18386호 2판
2009년 6월 6일 토요일

새 음반 '에이바홀릭' 내고 마리 앙투아네트로 변신 이 정 현

그녀의 변신은 무죄

"저보고 신들렸대요 무대에 오르면 '그분'이 온 것 같아"

가수 이정현(29)에게 대중은 늘 전위 무대를 기대한다. 그는 히트곡 '와' 때 동양 의상에 부채를 들고 춤추며 새끼 손가락을 마이크로 사용했고, '바꿔' 때는 지느러미 의상의 인어, '아리아리' 때는 원시인 복장을 한 '야생녀'로 변신했다.

이정현이 2년7개월 만인 최근 새 음반 '에이바홀릭(Avaholic)'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현대판 마리 앙투아네트로 변신한 재킷 사진을 공개했고, 미국 유명 댄서들과 찍은 관능적인 뮤직비디오로 대중의 바람에 화답했다.

전작인 6집 타이틀곡 '철수야 사랑해'의 밋밋함에 실망한 팬들도 '다시 이정현을 찾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정현에게 '뭔가 다름'을 요구하는 기대 심리는 왜일까. 한 가요 관계자는 "10대 시절이던 1996년 영화 '꽃잎'에서 장선우 감독의 작가주의를 강렬한 연기로 소화한 '끼', 가녀린 체구지만 무대에서 콘셉트를 적극적으로 소화하는 에너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최근 만난 이정현은 그 물음에 "저보고 다 신들렸다고 하잖아요. 제게 '점 봐 달라'는 동료 연예인도 있었어요"라며 '까르르' 웃음부터 터뜨렸다.

그는 "무대에 오르면 '그분'이 오시는 것 같다"며 "가족들도 '너 같지 않다'고 얘기한다. 무대에서는 머리가 진공 상태에 빠지는데 타고난 집중력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들이 독특하다고 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의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다르게 가는 것이다. 네다섯살 때 슈퍼마켓에 가면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야 직성이 풀렸던 만큼, 새로움에 대한 갈증은 언제나 그를 지배한다.

"제 무기는 지금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인기곡들이 예쁘고 귀엽고 톡톡 튀잖아요. 새 음반 대표곡 '크레이지(Crazy)'는 '셰이크 잇(Shake it)'이라며 강하게 소리치는 팝 댄스곡이죠. 신인가수 시절, 엄정화씨의 '몰라'가 유행할 때 모두 사이버 콘셉트를 추천했지만 저는 머리에 비녀 꽂고 부채 들고 나왔잖아요."

이정현의 음반에는 그간 보여주지 않은 새로운 시도도 숨어있다. 여느 녹음 때와 달리 화음까지 직접 소화하며 3일간 7시간씩 한 곡을 녹음했고,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보그 잇 걸(Vogue It Girl)', 왈츠 풍의 '미로 II' 등 다양한 장르를 녹였다.

그는 '와', '바꿔' 등이 자생적으로 인기를 끈 중국에서 2004년부터 서너차례 단독 공연을 했고 지난해 중국어 음반도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2005년부터 싱글 음반 4장을 내며 오리콘 데일리차트 1위 경험도 해봤다. '에이바'라는 예명을 만든 것도 해외 활동 때 쓰기 위해서다.

이미 대표 한류스타로 꼽히는 그는 "CJ차이나를 통해 다음달부터 중국에서 이번 음반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국어와 일본어 공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회가 닿으면 미국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

"미국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유명한 매니지먼트 대표와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입소문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동양의 작은 아이가 강렬하게 춤추는 모습이 신기했나봐요. 하지만 정말 신중하려고요. 미국은 확실히 가야 가는 거잖아요."

20대를 온전히 연예계 활동으로 보낸 그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적이 없어졌다고 했다.

"올해로 가수 데뷔 10주년이에요. 예전에는 일하면서 행복하다고 못 느꼈죠. 이제는 제 일을 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복인 것 같아요. 제 직업을 더 소중히 가꾸려고 노력해요. 예전에는 또래 가수를 경쟁자로 여겼지만 이제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등의 후배들을 보면 너무 예뻐요. 호호."

그는 '여자 이정현'으로서 사랑에 상처받아 우울증이 온 적도 있지만 착하고 성실한 지금의 남자 친구는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언덕이라고 자랑했다.

"여자 연예인들이 겉모습 보고 속는 경우가 많아 이용당하기도 해요. 이성을 신중하게 잘 만나야 해요. 3년가량 만난 남자 친구와는 불타는 열정보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커요. 편안한 관계가 오래 유지되면 사람들이 결혼도 하나봐요." /연합뉴스

'고은성 바이러스' 퍼뜨리는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한 효 주

그녀의 착함도 무죄

"착한 사람 복받는 세상 됐으면"

안방극장에 '고은성 바이러스'가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시청률 30%를 돌파한 SBS TV 주말 특별기획 '찬란한 유산'의 한효주(22)는 "고은성처럼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인정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환한 표정을 지었다.

"고은성은 착한 아이지만 사실 마냥 착하지만은 않아요. 할 말은 다 하거든요. 다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거죠. 모든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오뚝이처럼 결국 다시 일어서는 여자 주인공의 인생 스토리에 시청자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고은성은 부족할 것 없는 미국 유학생이었지만 어느날 갑자기 고아에 알거지가 됐으며, 자폐증을 앓는 동생마저 잃어버렸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특유의 건강한 에너지로 다시 일어나 우유배달부터 시작해 살아갈 궁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한효주는 "이제부터 로맨스가 강화되는데 벌써 가슴이 설렌다. 대본을 받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며 부끄러운 듯 웃으며 혀를 쏙 내밀었다.

'고은성 바이러스' 덕분에 한효주 역시 도약하는 계기를 잡았다. 2004년 MBC TV 시트콤 '논스톱5'에 얼굴을 내민 뒤, 2006년 KBS 2TV '봄의 왈츠'와 영화 '투사부일체'로 본격적으로 연기에 도전한 한효주는 그간 '일지매', '하늘만큼 땅만큼' 등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다.

"솔직히 데뷔한 이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오긴 했지만 뭔가 뚜렷하게 남긴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최근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내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찬란한 유산'의 대본을 받았어요. 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캐릭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는 말은 요즘 한효주에게 적용된다.

"온전히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예뻐보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감이 부족했던 때와 달리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나는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니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편집국장 曺庚完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팩스 222-4918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16 〈팩스 227-9500〉
경제부 2200-617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8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4267〉 〈팩스 222-0195〉
사회2부 2200-619 독자서비스국
〈팩스 227-0118〉 2200-551
문화생활부 2200-626 〈팩스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8 서울지사
체육팀 2200-627 02-773-9331
사진부 2200-690 〈팩스 02-773-9335〉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화안내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최고급관
2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3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마더 (18세)
5관	마더 (18세)
6관	천사와 악마 (15세)
7관	7급공무원 (12세) 김씨표류기 (12세)
8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9관	마더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2관	코렐라인 (전체)/에코 (15세)
3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4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5관	천사와 악마 (15세)
6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7관	마더 (18세)
8관	7급공무원 (12세)
9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10관	마더 (18세)

상무점 전관 좌석 교체!!
깨끗하고 편안한 좌석에서 영화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1588-7941 상담멘트 박범 →1번 or 2번→#번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1관	박쥐 (18세)
2관	마더 (18세)
3관	코렐라인 (전체)
4관	스타트랙:더 비기닝 (12세)
5관	마더 (18세)
6관	김씨표류기 (12세)
7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8관	7급공무원 (12세)
9관	천사와 악마 (15세)
10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용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6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마더 (18세)
2관	7급공무원 (12세)
3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천사와 악마 (15세)
5관	김씨표류기(12세)/스타트렉:더 비기닝(12세)
6관	인사동스캔들 (15세)/천사와 악마 (15세)
7관	마더 (18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2관	박물관이 살아있다2 (전체)
3관	터미네이터:미래전쟁의 시작 (15세)
4관	마더 (18세)
5관	에코 (15세))/천사와 악마 (15세)
6관	7급공무원 (12세)

• 무료주차 3시간
(충무 제5주소 및 한누리 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